

SUMI JO  
& FRIENDS

CREEDIA

*In Love*



SUBLIMAGE  
L'EXTRAIT

CHANEL

# SUBLIMAGE L'EXTRAIT

단 한 방울 안에 담긴 수블리마지의 놀라운 힘

수블리마지는 피부의 활력을 깨우는 바닐라 플레니폴리아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샤넬 연구소가 엄선한 오랜 역사를 지닌 식물로, 뛰어난 스킨케어 효능이 돋보이는 히말라야산 스웨티아가 풍부하게 담겨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선사합니다. 프리미엄 고농축 리페어 오일 세럼, 수블리마지 렉스트레로 세럼처럼 강력한 리페어 효과와 감각적인 스킨케어를 동시에 느껴보세요. 단 한 방울만으로도 탁월한 성분의 힘이 온전히 전해집니다. 사용 직후 피부에 건강한 광채와 활력이 되살아나 더욱 탄력 있어 보입니다. 사용할수록 매끈하고 부드러워진 피부는 송고하게 빛나며 탄탄해집니다.

# CHANEL

CREDIA  
MUSIC & ARTISTS

# SUMI JO & FRIENDS

## *In Love*

FRIENDS 첼로 홍진호 | 바이올린 대니 구 |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피아노 송영주 | 해금 나리 | 지휘 최영선 |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2.12.23 FRI 8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조수미 & 프렌즈

## <In Love>

### Sumi Jo & Friends

#### <In Love>

---

2022년 12월 23일 (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8PM Friday, December 23, 2022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

소프라노, 조수미	Sumi Jo, Soprano
첼로, 홍진호	Jinho Hong, Cello
바이올린, 대니 구	Danny Koo, Violin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ByeongMin Gil, Bass baritone
피아노, 송영주	Youngjoo Song, Piano
해금, 해금나리	Haegeum Nary, Haegeum
지휘, 최영선	Youngsun Choi, Conductor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주최 **CRE DIA MUSIC & ARTISTS**

협찬 **KB GOLD & WISE**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중 서곡 <small>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가에타노 도니제티	오페라 코미크 <연대의 딸> 중 '모두가 알아요' <small>조수미,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프란츠 레하르	그대는 나의 모든 것 <small>조수미,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오스발도 파레스	그럴 수도 있겠지 <small>김병민,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체사레 안드레아 빅시오	사랑한다 말해주오, 마리우 <small>김병민,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로버트 웰스 <small>송영주 편곡</small>	더 크리스마스 송 <small>송영주</small>
유재하	사랑하기 때문에 <small>대니 구, 송영주,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김효근	첫사랑 <small>조수미, 김병민,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정환호	꽃피는 날 <small>조수미,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 중 간 휴 식

샤오강 예	꽃피는 로맨스 (영화 '카이로 선언' 삽입곡) <small>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빨간머리엔	민들레야 (드라마 '커피홀' 삽입곡) <small>조수미, 해금나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박지훈 <small>작곡·도중환 시</small>	흔들리며 피는 꽃 <small>조수미, 해금나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롤프 뢰블란	유 레이즈 미 업 <small>해금나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안단테 칸타빌레 <small>홍진호,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토마소 알비노니	아다지오 <small>조수미,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신재홍 <small>작곡·이지영 작사</small>	이 밤이 지나면 (김은혜 편곡) <small>조수미,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안토니오 비발디	<사계> 중 '겨울', 1악장 <small>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중 '내가 시골의 순진한 여자를 연기할 때' <small>조수미,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small>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 KB GOLD & WISE *the* FIRST

자산관리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KB GOLD & WISE에 *the* FIRST를 더했으니  
20년간 쌓아 온 자산관리의 지혜에 앞서가는 전문성까지!  
이제, 당신도 만나보세요.

CREA

Johann Strauss II	Overture from Operetta <Die Fledermaus>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Gaetano Donizetti	'Chacun le sait' from opéra-comique <La Fille du Régiment> SumiJo,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Franz Lehár	Dein ist mein ganzes Herz SumiJo,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Oswaldo Farrés	Quizás, Quizás, Quizás ByeongMin Gil,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Cesare Andrea Bixio	Parlami d'amore Mariu ByeongMin Gil,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Robert Wells Arr. Youngjo Song	The Christmas Song Youngjo Song
Jae Ha Yoo	Because I Love You Danny Koo, Youngjo Song,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Hyo Gun Kym	First Love SumiJo, ByeongMin Gil,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Hwanho Jung	A Flower Blooms SumiJo,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INTERMISSION	
Xiaogang Ye	Blossoming Romance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Red Anne	Dandelion SumiJo, Haegeum Nary,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Ji Hoon Park Composer	No Flower Blooms without Wavering
Jonghwan Do Poem	SumiJo, Haegeum Nary,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Rolf Løvland	You Raise Me Up Haegeum Nary,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Pyotr Il'yich Tchaikovsky	Andante Cantabile Jinho Hong,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Tomaso Albinoni	Adagio SumiJo,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Shin Jae-hong Composer	After This Night (Arr. Eunhye Kim)
Lee Jiyoung Lyrics	SumiJo,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Antonio Vivaldi	'Winter' from <The Four Seasons>, 1st mov.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Johann Strauss II	'Spiel ich die Unschuld vom Lande' from Operetta <Die Fledermaus> SumiJo,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 S U M I J O

조수미

그녀가 들려주는 사랑과 위안의 우리 노래들

사랑할 때  
**In Love**

KOREAN LOVE POEMS

with

군포 프라임 오케스트라 (최영선 지휘),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  
첼리스트 홍진호, 해금연주자 해금나리 & 송영주 켈렛



'사랑할 때 (in Love)'는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느끼고 겪는 '사랑하는 시간' 들을 우리의 언어와 정서를 담아 담담하고 세련되게 표현한 앨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음반이 되길 희망하며, 오랜 세월 동안 제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신 팬들 여러분께 이 앨범을 바칩니다.

- 조수미 *Sumi Jo*



마중  
연  
눈  
흔들리며 피는 꽃  
민들레야  
사랑할 때  
Fight for LOVE  
첫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Dear Luna  
꽃피는 날

# In Love

전 세계 무대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으며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온 소프라노 조수미가 2022년 12월 새 앨범을 발매, 12월 23일에는 아름다운 한국 노래를 포함하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예술의전당 무대를 찾는다.

조수미의 새 앨범을 마주할 때마다 이번엔 어떤 음악과 ‘이야기’를 담아냈을까 궁금해진다. 1986년 국제무대에 데뷔한 이후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노래하며 애호가와 평론가들에게 호평받는 기념비적인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지만, 뮤지컬 넘버를 비롯해 누구나 들어도 쉽게 공감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대중 레퍼토리를 섬세하게 기획하고 훌륭하게 노래해 음악 감상의 영역을 넓혀왔기 때문이다.

새 앨범 <In LOVE 사랑할 때>에는 현대적 우리의 예술 노래 11곡이 담겨 있다.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수미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러시아어 등 세계 각국의 언어로 된 가곡과 아리아를 불렀다. 발성도 탁월해 음악사에 길이 남을만한 기념비적인 음반도 다수 제작했지만, 언어 표현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조수미는 각 나라 언어로 노래할 때마다 모국어인 한글로 노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특히 성악 발성으로 한국어를 가장 자연스럽게 노래할 수 있는 가곡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이 강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86년, 작은 체구의 소프라노 조수미는 국제무대에서 서게 된 후 세계적인 음반사인 워너뮤직 산하 에라토 레이블에서 앨범을 제안받게 된다. 기교적으로 빼어난 콜로라투라 소프라노가 오페라에서 부른 아리아를 모아 <비르투오소 아리아>(VIRTUOSO ARIAS)(1995년)라는 앨범을 발매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수미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게 된다. 앨범 안에 한국 가곡 ‘보리밭’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곡 보리밭은 기교적으로 빼어난 곡도 아니었고, 더욱이 오페라 속에 등장하는 ‘아리아’도 아니었다. 1994년 당시 영국 레코드사에서는 한글을 타이핑할 프로그램이 없어 앨범 겉표지에 한글 표기도 할 수 없었는데, 가곡을 넣고 한글 표기까지 넣는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세계 곳곳에 글로벌 배포되는 앨범인데 해외에서는 ‘보리밭’이라는 가곡도 몰랐을테고, 한국에서도 서양의 성악 발성으로 노래할 수 있는 곡이 있는지 관심도 없었을 것 같다. 결국, 지휘자 파올로 올미와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난생 처음 한국 가곡을 연주하게 됐고, 이 앨범은 당당히 에라토 레이블의 초록색 엠블럼을 달고 전세계 음반시장에 나오게 되었다.

2001년과 2002년, 조수미는 한국 가곡을 담은 앨범 <아리아리랑>과 <향수>를 선보였다. 본인 목소리에 잘 맞고 많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별해 담은 것이다. 정성껏 부른 노래들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가사가 있는 노래는 전달하고

자 하는 메시지, ‘말’이 의미하는 내용 때문에 특별한 감동이 있다. 여담이지만 그때까지 많은 성악가들은 발성에 집중한 나머지 한국 가곡을 부를 때에도 가사 전달력이 좋지 않았다. 당시엔 공중파 TV에서도 가곡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 일반인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가곡은 불편하고 거리감 있는 음악’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했다.

조수미의 앨범은 가사도 명확하게 들리지만, 우리 가곡도 예술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기록이 됐다. 특히 조수미가 불러 더욱 사랑받게 된 ‘강 건너 봄이 오듯’과 ‘아리아리랑’ 등은 이후 많은 소프라노들이 자신의 리사이틀에서 자주 부르게 됐고, 더욱 확산됐다.

조수미는 해외 연주 중에도 한국 가곡을 자주 불렀는데, 해외 동포들에게 한국어로 된 음악을 듣는 일은 특별한 수밖에 없었다. 모국어로 노래한 가곡은 듣는 사람도, 직접 부르는 사람에게도 특별한 연대감과 존재감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한국 가곡의 역사는 이제 막 100년이 되었다.

가곡은 물론 동요를 처음 짓고 부르던 시절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난과 설움, 독립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가사에 담아 부르고 애환을 달렸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발전, 변화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는데, 가곡의 내용과 스타일이 ‘현재’를 담지 못한 탓에 가곡은 한동안 ‘옛 노래’에 머물 뻔했다. 특정 시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최근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현시점의 감성을 노래한 가사와 음악 스타일로 다양한 가곡이 소개되고 있다. 성악 발성으로 동요와 가곡, 가요 등을 편곡해 노래한 경연 <퀵템싱어> 같은 인기 프로그램도 가곡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 조수미는 가곡 앨범 <향수>도 발매했지만 한국 가요를 노래한 앨범 <그리다>를 발매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가곡과 가요 중간 형식인 크로스오버 형태의 작품을 선별, <In LOVE 사랑할 때> 앨범을 발매했으며, 그 중 일부를 예술의전당 공연에서 선보인다. 마중, 연, 눈, 흔들리며 피는 꽃, 꽃피는 날 등 가사와 선율이 아름다운 곡들은 조수미의 감미로운 음색과 발성으로 새롭게 전달된다. 특히 오케스트라 편성을 포함, 다양한 악기와 앙상블을 이룬 편곡 구성은 기존에 들어왔던 곡의 이미지와 다른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한다.

누구나 들어도 공감할 수 있고, 곁에 두고 싶은 조수미표 한국의 노래, <In LOVE>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오래 남게 되기를 바라본다.

글 | 이지영 (클럽발코니 편집장,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 KOREAN LOVE POEMS FROM <IN LOVE>

###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곡을 쓸 때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바로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일 것이다. 이 곡은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가 편곡과 연주를 맡았고, 대중과 클래식 을 연주하는 데 있어 탁월한 감각을 겸비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참여했다.

### 흔들리며 피는 꽃

도중환의 시어가 아름다운 이 곡은 사랑할 때의 고난이나 아픔을 ‘흔들림’이 나 ‘바람과 비에 젖은’ 등 고전적으로 표현한 시어가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다. 누구보다도 화려한 고음을 열창할 수 있는 조수미지만, 바람과 비에 젖은 흔들림이 꽃을 피워낸다는 문구를 진심을 담아 귓가에 속삭이듯 조곤조곤 노래한다. 단어 하나하나를 꼭꼭 눌러 발음하는 조수미의 소리와 정성이 감동적이며, 해금과 하프가 함께 어우러진 앙상블이 섬세한 노랫말을 잘 살려내고 있다.

### 민들레야

드라마 <커피하우스> 삽입곡인 ‘민들레야’는 복讖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지만 만나지 못한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민들레 홀씨가 되어 날아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까지 닿기를 바라는 서정적인 곡이다. 편곡도 화려하고, 조수미만의 화려한 고음이 적절하고 드라마틱하게 어우러져 짧지만 강한 인상을 주는 곡이다.

### 첫사랑

우리시대 아트팝을 대표하는 작곡가인 김효근의 수많은 가곡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겠다. 예술성과 대중성이 접목된 그의 가곡들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깊이 다가가면서 기존 가곡계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큼 큰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곡이 ‘첫사랑’이다. ‘첫사랑’은 작곡가가 현재의 아내에게 청혼을 결심하던 때에 만든 15개의 피아노 연주곡과 가곡 중 하나다. 원래는 피아노 연주곡이었지만 가사가 있는 가곡으로 완성되면서 남성 성악 오중창단 유엔젤보이스에 의해 녹음이 됐고, 지금까지 이 가사로 널리 불리게 됐다.

### 꽃피는 날

피아니스트 정환호의 곡 ‘꽃피는 날’은 2012년 처음 선보인 후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곡이다. 특히 <팬텀싱어 2>에서 소개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다. ‘꽃이 핀다’는 희망적인 과정과 담백한 글말들이 삶에 지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따스한 위로가 되는 곡이다.

# In Love

## 오페라 코미크 <연대의 딸> 중

### '모두가 알아야'

Chacun le sait, chacun le dit,  
 Le régiment par excellence,  
 Le seul à qui l'on fass' crédit  
 Dans tous les cabarets de France...  
 Le régiment, en tous pays,  
 L'effroi des amants des maris...  
 Mais de la beauté bien suprême!  
 Il est là, il est là, il est là, morbleu!  
 Le voilà, le voilà, le voilà, corbleu!  
 Il est là, il est là, le voilà,  
 Le beau Vingt-et-unième!  
 Le beau Vingt-et-unième!

Il a gagné tant de combats,  
 Que notre empereur, on le pense,  
 Fera chacun de ses soldats,  
 A la paix, maréchal de France!  
 Car, c'est connu le regiment  
 Le plus vainqueur, le plus charmant,  
 Qu'un sexe craint,  
 et que l'autre aime.  
 Il est là, il est là, il est là, morbleu!  
 Le voilà, le voilà, le voilà, corbleu!  
 Il est là, il est là, le voilà,  
 Le beau Vingt-et-unième!  
 Le beau Vingt-et-unième!

우리 연대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누구나 말하죠  
 모든 프랑스의 술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대로 알고 있죠  
 이 연대는 어느 곳에서는  
 많은 애인들과 남편에게 사랑받죠  
 우리는 최고로 멋지니까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나만 찾네  
 여기 저기서 나만 원하네  
 여기서 저기서 나만 찾네  
 나는 멋진 연대의 딸!  
 나는 멋진 21연대의 딸!

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죠  
 프랑스 최고의 21연대  
 우리는 프랑스의 자존심  
 왜냐면 우리는 유명하고  
 항상 승리하고 가장 매력적이니까요!  
 누구는 날 좋아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하죠

여기서도 저기서도 나만 찾네  
 여기 저기서 나만 원하네  
 여기서 저기서 나만 찾네  
 나는 멋진 연대의 딸!  
 나는 멋진 21연대의 딸!

### 그대는 나의 모든 것

Dein ist mein ganzes Herz!  
 Wo du nicht bist, kann ich nicht sein  
 So, wie die Blume welkt, wenn sie nicht küsst der Sonnenschein!  
 Dein ist mein schönstes Lied, weil es allein aus der Liebe erblüht.  
 Sag mir noch einmal, mein einzig Lieb, oh sag noch einmal mir:  
 Ich hab' dich lieb!

Wohin ich immer gehe, ich fühle deine Nähe.  
 Ich möchte deinen Atem trinken und betend dir zu Füßen sinken,  
 dir, dir allein!  
 Wie wunderbar ist dein leuchtendes Haar!  
 Traumschön und sehnsuchtsbang ist dein strahlender Blick.  
 Hör ich der Stimme Klang, ist es so wie Musik.

Dein ist mein ganzes Herz!  
 Wo du nicht bist, kann ich nicht sein.  
 So, wie die Blume welkt, wenn sie nicht küsst der Sonnenschein!  
 Dein ist mein schönstes Lied, weil es allein aus der Liebe erblüht.  
 Sag mir noch einmal, mein einzig Lieb, oh sag noch einmal mir:  
 Ich hab' dich lieb!

나의 마음은 오로지 그대의 것  
 그대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오  
 햇빛의 입맞춤을 받지 못하여 시드는 한 송이 꽃처럼  
 그대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것은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랴오  
 한 번 더 내게 말해주오, 나의 유일한 사랑, 오 다시 한번 말해주오  
 사랑한다고

내가 어디에 있던지 난 그대가가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오  
 그대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오 그리고 그대를 찬미하며  
 그대의 앞에 무릎을 꿇는다오  
 그대, 오직 그대 앞에  
 그대의 빛나는 머리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열망과 꿈으로 가득한 환한 그대의 눈빛  
 음악처럼 나에게 들려오는 그대의 목소리

나의 마음은 오로지 그대의 것  
 그대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오  
 햇빛의 입맞춤을 받지 못하여 시드는 한 송이 꽃처럼  
 그대는 나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것은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랴오  
 한 번 더 내게 말해주오, 나의 유일한 사랑, 오 다시 한번 말해주오  
 사랑한다고

## 그럴 수도 있겠지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u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ndo  
Y tu, tu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a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as tu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ndo  
Y tu, tu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항상 당신에게 따지듯이 물었지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라고 말이에요  
당신은 늘 내게 대답하죠  
'어쩌면, 아마도, 아마도' 라고

그렇게 날들은 지나가고  
그렇게 나는 기다리기만 하네요  
그렇게 당신은 대답만 하죠  
'어쩌면, 아마도, 아마도' 라며

시간만 잃어버리고 있네요  
생각하고 생각만 하느라  
당신이 더 바라는 것을 위해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렇게 날들은 지나가고  
그렇게 나는 기다리기만 하네요  
그렇게 당신은 대답만 하죠  
'어쩌면, 아마도, 아마도' 라며

## 사랑한다 말해주오, 마리우

Come sei bella, più bella stasera, Mariù  
Splende un sorriso di stella negli occhi tuoi blu  
Anche se avverso il destino domani sarà  
Oggi ti sono vicino, perché sospirar?  
Non pensar!

Parlami d'amore, Mariù  
Tutta la mia vita sei tu  
Gli occhi tuoi belli brillano  
Fiamme di sogno scintillano  
Dimmi che illusione non è  
Dimmi che sei tutta per me!  
Qui sul tuo cuor non soffro più  
Parlami d'amore, Mariù

어쩌면 이리 아름다운지, 오늘 밤엔 더욱 아름답군요, 마리우  
당신의 푸른 눈동자 속에서 별의 미소가 빛나는군요  
비록 내일의 운명이 불행할지라도  
오늘 내가 당신 곁에 있는데, 왜 환숨을 쉬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사랑한다 말해주오, 마리우  
내 삶은 오직 당신을 위한 것이요  
당신의 아름다운 눈은 빛이 나고  
열정적인 꿈들로 반짝이고 있소  
환상이 아니라고 말해주오  
당신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 말해주오  
당신의 품 안에선 더 이상의 고통은 없으니  
사랑한다 말해주오, 마리우

# CREZIA

## 첫사랑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여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애타는 시간이여  
나 홀로 저민다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여  
내 마음 알릴세라 눈길 돌리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여  
나 홀로 벅차다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은 세상이여, 날 위해 노래해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여  
떨리는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그토록 짧았던 시간이여,  
영원히 멈추라  
내 영혼이여, 즐거이 노래해  
은 세상이여, 우리를 축복해  
내 마음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첫사랑

## 꽃피는 날

홀로 있는 밤 시린 공기가  
모퉁이 구석진 곳 차갑게 스밀 때  
흔적도 없는 빛 바랜 그곳에  
잠시 기대어 생각을 해 본다  
난 가끔씩 그려 보았네  
그리움을 뺀 뒤엔 꿈꾸는 날들  
난 가끔씩 꿈꿔 보았네  
차가운 가슴 뛰게 하는 바깥엔 날들  
지쳐 있던 나를 일으켜  
차갑고 깊은 바다 먼 곳에서  
거센 파도와 차가운 바람과  
시린 한숨들이 입가에 맺힐 때  
난 가끔씩 꿈꿔 보았네  
차가운 가슴 뛰게 하는 바깥엔 날들  
지쳐 있던 나를 일으켜  
차갑고 깊은 바다 먼 곳에서  
거센 파도와 차가운 바람과  
시린 한숨들이 입가에 맺힐 때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  
잊혀진 기억 초라한 그곳에  
작고 하얗게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날 숨쉬는 오늘이  
아름답게 아름답게 피어나

## 민들레야

노란 민들레야 내 마음을 전해다오  
내 남이 계신 곳에 바람 타고 훨훨 날아가  
허무한 빛을 따라 어디쯤에 계시려나  
소리 없는 하늘에 그리고 싶어라  
이런 사랑이라도 아끼지 못해서 드린다  
같은 하늘 하나의 운명이라 믿고 싶어  
눈을 뜬다  
푸르른 강물들이 내 마음을 전해다오  
내 남이 계신 곳에 세월 따라 흘러 흘러가  
멀고 먼 거리 어디쯤에 오시려나  
흐릿해진 기억 가슴에 껴안아 붙잡고 싶어라  
이런 사랑이라도 아끼지 못해서 드린다  
같은 하늘 하나의 운명이라 믿고 싶어  
눈을 뜬다  
눈을 뜬다  
아픈 사랑이라서 허공에 눈물만 맺힌다  
붉은 하늘 하나의 운명이라 믿고 싶어  
눈을 뜬다

##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끈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요청으로 시의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아다지오

I don't know where to find you  
I don't know how to reach you  
I hear your voice in the wind  
I feel you under my skin  
Within my heart and my soul  
I wait for you  
Adagio

All of these nights without you  
All of my dreams surround you  
I see and I touch your face  
I fall into your embrace  
When the time is right I know  
You'll be in my arms  
Adagio

I close my eyes and I find a way  
No need for me to pray  
I've walked so far  
I've fought so hard  
Nothing more to explain  
I know all that remains  
Is a piano that plays

If you know where to find me  
If you know how to reach me  
Before this light fades away  
Before I run out of faith  
Be the only man to say  
That you'll hear my heart  
That you'll give your life  
Forever you'll stay

Don't let this light fade away  
 Don't let me run out of faith  
 Be the only man to say  
 That you believe  
 Make me believe  
 You won't let go  
 Adagio

당신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람 속에서도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 몸에서도 당신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도, 영혼 속에서도  
 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천히 말이에요

당신 없이 지새웠던 그 수많은 밤들  
 내 모든 꿈들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당신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속에 안기죠  
 난 알아요, 때가 되면  
 내 품에 와서 안길 거라는 걸요  
 천천히 말이에요

눈을 감고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어요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 긴 길을 걸어왔어요  
 너무나 힘들게 싸워왔고요  
 이제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제 남은 건  
 지금 연주되고 있는 피아노뿐이에요

당신이 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고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내게로 올 수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이 불빛이 사라지기 전에 말이에요  
 내 믿음이 시들어가기 전에 말이에요  
 내 맘 깊은 곳의 소리까지 들겠다 말할 수 있는  
 당신의 삶을 온전히 주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영원히 머물 거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이 불빛이 사그라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내 믿음이 시들어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믿고 있다고  
 내가 믿게 만들어주세요  
 당신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천천히 말이에요

## 이 밤이 지나면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그대와 단 둘이 앉아서  
 그대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네  
 사랑스런 그대 눈가에  
 슬픈 한 줄기 눈물이 흘러  
 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데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없이 이대로  
 그땐 떠나보내야만 하나  
 불빛만이 가득한 이 밤  
 슬픈 이별은 다가오지만 지난  
 추억에 아름다웠던 그대 모습 사랑해  
 이별이란 말은 하지마  
 그대 사랑을 느끼고 싶어  
 나는 아직도 하고픈 말 많은데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런 말없이 이대로  
 그땠 떠나보내야만 하나



## 오페레타 <박쥐> 중 '내가 시골의 순진한 여자를 연기할 때'

Spiel ich die Unschuld vom Lande  
 Natürlich im kurzen Gewande  
 So hüpf' ich ganz neckisch umher  
 Als ob ich ein Eichkatzerl wär  
 Und kommt ein saub'rer junger Mann  
 So blinzele ich lächelnd ihn an  
 Durch die Finger zwar nur  
 Als ein Kind der Natur  
 Und zupf' an meinem Schürzenband  
 So fängt man Spatzen auf dem Land  
 Und folgt er mir, wohin ich geh'  
 Sag ich naiv: Sie Schlimmer, Sie  
 Setz' mich zu ihm ins Gras sodann  
 Und fang' auf d' Letzt zu singen an  
 Lalalalalala  
 Wenn Sie das gesehn  
 Müssen Sie gestehn  
 Es wär der Schaden nicht gering  
 Wenn mit dem Talent, mit dem Talent



Ich nicht zum Theater ging'!

Spiel' ich eine Königin  
Schreie' ich majestätisch hin  
Nicke hier und nicke da  
Ja ganz, ja in meiner Gloria!

Alles macht voll Ehrfurcht mir Spalier  
Lauscht den Tönen meines Sings  
Lächelnd ich das Reich und Volk regier'  
Königin par excellence!  
Lalalalalala

Wenn Sie das gesehn  
Müssen Sie gestehn  
Es wär der Schaden nicht gering  
Wenn mit dem Talent, mit dem Talent  
Ich nicht zum Theater ging'!

Spiel ich 'ne Dame von Paris, jah  
Die Gattin eines Herrn Marquis, jah  
Da kommt ein junger Grafins Haus, jah  
Der geht auf meine Tugend aus, jah!

Zwei Akt hindurch geb' ich nicht nach  
Doch ach, im dritten werd' ich schwach  
Da öffnet plötzlich sich die Tür  
O weh, mein Mann  
Was wird aus mir, ach!

Verzeihung!  
Flöt ich, er verzeiht, ah  
Zum Schluss-Tableau, da weinen d' Leut  
Ja, ach, ja!

내가 시골의 순진한 여자를 연기할 때  
물론 짧은 원피스를 입고  
나는 수줍은 듯이 돌아다니겠지  
내가 마치 다람쥐인 것처럼

그리고 한 멋진 젊은 남자가 오면  
나는 그를 힐끔 보고 웃어줄거야  
손가락 사이로만 보고  
자연의 아이처럼  
나의 앞치마 끈을 핑길거야  
그것이 바로 시골의 남자를 잡는 법이야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따라온다면  
나는 그에게 순진하게 말할 거야. "당신 참 못됐군요!"  
그러고는 잔디 위에 그 옆에 앉아서  
노래를 하기 시작할거야  
라라라라라

만일 당신이 그걸 본다면  
당신은 꼭 인정해야 할걸  
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 재능으로  
극장에 서지 않는 것이!

내가 여왕을 연기한다면  
나는 위엄있게 산책을 할 거야  
여기에 끄덕이고 저기에 끄덕이며  
그래, 모든 건 나의 영광이야!

모두가 내 앞에 줄을 서고 나를 경외하면서  
나의 노래를 들겠지  
나는 나의 나라와 백성들을 미소로 지배하는  
최고의 여왕이야!  
라라라라라

만일 당신이 그걸 본다면  
당신은 꼭 인정해야 할걸  
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이 재능으로  
극장에 서지 않는 것이!

내가 파리의 여인을 연기할 때, 그래  
Marquis의 부인  
젊은 공작이 집에 방문해서  
나의 덕을 시험하겠지, 그래!

두 가지 역할들을 했지만  
아, 세 번째 역할은 약해요  
저 문이 이제 열리고  
오 사랑하는 이여, 나의 남편!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아!

용서해주세요!  
나는 피리를 불어, 그가 용서해, 아  
모든 것이 끝나고, 모두가 울거야

곡목해설 | 이지영 (클럽발코니 편집장,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이번처럼 제가 온갖 정성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준비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가 있는데, 지금이 사랑할 때라고 강렬하게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외롭고 고독한 삶에서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이러한 사랑을 할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진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첫 사랑의 감정을 다 잊어버리기 전에 앨범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았을 때 놓기 싫은 것처럼 그 손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공연과 앨범이 되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CREDIA

“사랑할 때의 그 떨림과 설렘을 동시대를 살아가며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정서를 나누는 가족 같은 우리나라 관객분들께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이 얼마나 설레고 중요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 분명히 생각날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애절함과 약간의 절실함이 들어가 있어서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울겨울 아름답고 로맨틱하게, 새해 선물처럼 이 공연과 앨범을 여러분께 자랑스럽게 소개하게 되어 정말 고맙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Sumi Jo, Soprano



소프라노 조수미는 나폴리 존타 국제 콩쿠르, 프랜시스 비오티 국제 콩쿠르, 스페인 비냐스 국제 콩쿠르,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 국제 콩쿠르, 베로나 국제 콩쿠르 등의 명성 있는 국제 콩쿠르를 우승하며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의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의 ‘질다’ 역으로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1988년에는 조수미의 오페라 인생을 세계 정상의 무대로 이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는 큰 전환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바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과의 만남이다. “신이 내린 목소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라는 카라얀의 극찬과 함께 오디션에 초청되는 영광을 누렸으며 카라얀의 급작스러운 서거로 게오르그 솔티 경이 대신 지휘했던 잘츠부르크 페스

티벌의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회>의 ‘오스카’ 역으로 출연했다. 또한 「잘츠부르크의 카라얀」이라는 비디오 녹음과 함께 조수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그녀는 앞만 보며 달리는 콜로라투라의 대가로서 이탈리아 라 스칼라, 런던 코벤트 가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프랑스 바스티유 오페라 등 세계 정상급 오페라 하우스에서의 공연에 주역으로 출연해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에게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꾸준한 음악 활동으로 조수미는 1993년 이탈리아에서 그해 최고의 소프라노에게 수여하는 황금기러기 상(La Siola d'Oro)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음악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평화예술인(Artist for Peace)’으로 선정되었다. 2008년 푸치니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성악가에게 있어 자랑스러운 명예이자 큰 영광인 푸치니 상(The Puccini Award)을 수상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제29회 베이징 올림픽에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안젤라 게오르규와 함께 ‘세계 3대 소프라노’로 선정되어 독창회 무대를 가졌다.

국제 오페라 무대 데뷔 30주년을 맞은 2016년 그녀가 부른 영화 <유스>의 주제가 ‘심플 송’이 그해 4월 이탈리아 도나텔로 어워드에서 주제가상 수상,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주제가상에 노미네이트되었고, 2017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1년 동안 뉴욕, 모스크바 등 전 세계에서 평창올림픽 성공기원 공연에 참여, 2018년 3월 평창동계패럴림픽 공식 주제가 ‘Here as ONE’을 개막식 무대에서 선보였으며 곧이어 러시아에서 개최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제1회 브라보 어워드에서 최고여성연주가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에는 오페라 업적에 기여한 공적으로 이탈리아 정부가 주는 친선훈장과 기사 작위를 받았으며, 2021년 한국인 최초로 ‘아시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초빙교수로도 초빙되어 2022년부터 강단에 서고 있으며, 2023년에는 조수미의 이름을 딴 국제 성악 콩쿠르가 프랑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음, 미국 하버드 대학교 등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 꾸준히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음반으로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게오르그 솔티, 주빈 메타 등과 함께 주옥같은 명반을 남겨 1993년 게오르그 솔티와 녹음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그림자 없는 여인>은 그해 오페라 최고 부문에 선정되어 그래미 상(Grammy Award)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2000년 발매된 뮤지컬 넘버로 구성된 크로스오버 <Only Love>를 통해 밀리언 셀러의 판매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응원가 <챔피언>은 전세계 축구팬들에게 조수미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2007년 계약을 체결한 유니버설 뮤직 그룹을 통해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반사인 독일의 도이치 그라모폰(DG) 레이블로 세계의 사랑 노래를 모은 <미싱 유(Missing you)>를 발매해 ‘콰이브 타임즈 플래티넘’의 기록을 이뤘다. 2010년 3월 유니버설과 함께 하는 두 번째 앨범인 독일가곡 <Ich Liebe Dich> 앨범을 발매하였고 2011년에는 집시의 삶을 노래한 <Libera> 앨범을, 2012년 12월에는 러시아 유명 작곡가 이고르 크루토이(Igor Krutoy)의 작품을 녹음한 음반 <La Luce>를 발매하였다. 2015년에는 처음으로 가요 앨범 <그리다>를 발매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계속 넓히고 있다. 2021년에는 데뷔 35주년을 맞아, 이탈리아 체임버 오케스트라 이 무지치와 녹음한 새 바로크 앨범 <Lux. 3570>을 발매했으며 이를 기념한 투어를 진행했다. 2022년 12월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담은 한국 노래 앨범 <사랑할 때>를 발매했다.



첼리스트 홍진호

Jinho Hong, Cello

첼리스트 홍진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수석 졸업하였다.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콩쿠르를 시작으로 멘델스존 콩쿠르, 프랑스 보르도 국제 콩쿠르, 중국 쉐펄트 국제 콩쿠르, 스위스 조르지오 베르가모 콩쿠르 등 여러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 및 우승하였다. 독일 중부 체임버 오케스트라, 뷔르츠부르크 음대 오케스트라, 불가리아 슈멘 시립 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은 물론 세계적인 음악가 Christian Benda와 함께 체코 벨벳혁명 기념 음반 녹음, 스페인 무제티카 페스티벌, 네덜란드 Zeister Muziekdagen 등 권위 있는 실내악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연주하였다.

2019년에는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밴드>에서 우승하면서 밴드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까지 저변을 넓히고 있다. 또한 2021년과 2022년 3.1절 기념식,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의 헌정 공연을 비롯하여 한국전쟁 70주년을 담은 MBC 다큐멘터리 <노병과 소년>에도 참여한 바 있다.

JTBC <비긴 어게인>, KBS <열린음악회>, <유희열의 스케치북>, EBS <스페이스 공감>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연주자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는 그는 서울재즈페스티벌, 어썸 뮤직 페스티벌 등을 통해 클래식, 재즈 등 그 어떤 첼리스트보다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2020년 롯데콘서트홀 단독 콘서트를 시작으로 2021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단독 리사이틀과 투어 공연들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첫 번째 음반으로 공연 실황을 담은 <Purify>가 유니버설 뮤직에서 발매되었으며 2022년에는 두 번째 음반이자 그의 첫 번째 스튜디오 레코딩 앨범인 <Modern Cello>가 발매되었다. 홍진호는 이탈리아 Ferdinando Garimberti 악기로 연주하고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Danny Koo, Violin



열정적인 음악성과 모험적인 프로젝트로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대니 구는 클래식 음악계에서 가장 신나는 음악가이자 가장 인기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명이다. 그는 클래식 솔리스트, 실내악 연주자 뿐만 아니라 재즈, 팝 등 다양한 장르로 전 세계를 무대로 공연했다.

2021년 그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수원시립교향악단, 서울 체임버 오케스트라, KNN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디토 오케스트라 협연 및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서울숲 재즈 페스티벌, 그리고 12월 롯데콘서트홀 첫 단독 콘서트까지 다양한 무대를 성황리에 마쳤다. 2022년에는 워너뮤직 코리아와의 첫 솔로 앨범 <HOME> 발매를 시작으로 록포트 실내악 페스티벌, 토론토 체임버 페스티벌,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고양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으며, 클래식 앨범 <CONNECTED>의 발매를 기념한 롯데콘서트홀 리사이틀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실내악 연주자로서 그는 기돈 크레머, 피터 비스펠베이, 필립 그라팽, 요제프 칼리히슈타인, 요하네스 모저, 제이미 라레도, 유키 구라모토, 브렌타노 콰르텟, SLSQ, 클리블랜드 콰르텟과 같은 저명한 클래식 아티스트들과 연주하였다.

MBC <복면가왕>, JTBC <슈퍼밴드 2> 등 다수의 대중매체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과 친근하고 솔직한 성격으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탁월한 진행 능력으로 최근 MBC <TV 예술무대> MC로 발탁되었다. 강연자로서 “The Power of Classical Music”과 “The Magic of Bach”라는 두 개의 TED 강연을 하였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롯데월드몰,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등에서 많은 강연을 해오고 있다.

1991년 시카고에서 태어나 6살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한 그는 전설적인 헬렌 칼바서의 마지막 제자이며,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도날드 웨일러스타인과 김수빈, 말콤 로위를 사사하며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1902년산 빈센조 포스티글리오네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ByeongMin Gil, Bass baritone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일찍이 짙은 호소력과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동아음악콩쿠르 1위, 국립오페라단 콩쿠르 금상, 광주성악콩쿠르 1위, 대구성악콩쿠르 대상 등 국내 권위있는 콩쿠르들을 석권하였으며 대한민국 음악대상에서 미래가 촉망되는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월드 영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6년 프랑스에서 열린 뿔루즈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성악가로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2017년 모나코 몬테 카를로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비엔나 아웃 에델만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2018년 조지아 트빌리시 오페라크라운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2019년 미국 줄리오 가리 국제콩쿠르와 러시아 갈리나 비슈네브스카야 국제성악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하며 그의 예술적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2019년 8월부터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제트 파커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Jette Parker Artists Programme) 19/20 시즌에 선발되어 활동하던 그는 2020년 JTBC <팬텀싱어 3>에 출연하여 장차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성악가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으며 정통 성악가와 크로스오버 그룹 레떼아모르의 리더로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만능 엔터테이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10월 한국가곡 앨범 <꽃 때: A Time to Blossom>과 2022년 2월 17일 정통 클래식앨범 <The Road of Classics: 고전의 길>을 발매하였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기념 리사이틀을 성공적으로 개최, 다양한 콘서트를 비롯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통 클래식 성악가로서의 활약과 더불어 크로스오버 그룹 레떼아모르의 리더를 맡고 있는 그는 현재 <2022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을 통해 뮤지컬 배우로 데뷔하였으며 황제 프란츠 요제프 역으로 공연 중이다.



해금 해금나리

Haegeum Nary, Haegeum



어린 시절 판소리를 배우며 국악을 접하기 시작한 해금연주가 나리(Nary, 본명: 전지인)는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에서 학사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수료)를 마쳤다. 1996년 국립음악원 주최 국악동요제에서 동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2002년에는 문교부(現 교육부) 지정으로 음악 교과서에 ‘우리 장단 배워 보자’라는 작품이 수록되었다.

2013년 부산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진행한 첫 번째 독주회를 시작으로 201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시안게임 100주년 기념행사 및 OCA 총회 초청연주, 인도 뉴델리에서 2014 인 천아시안게임 인도 로드쇼 축하 공연,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김연준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음악회 연주,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 초청 연주 등 무대 위를 종횡무진 활동해왔다.

그해 우리 가곡 음악 ‘시들지 않는 선율들’을 발매하여 영역을 넓혀나가는 한편, 2015년 체코 스메타나홀에서 노스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이 소니 클래식을 통해 실황 음반으로 발매되었다. 대만 윈 송 오케스트라의 초청 협연을 계기로 국가음악청에서 최초로 한국 악기를 연주하기도 했다. 같은 해 어른들을 위한 자장가 ‘자장자장’을 디지털 음반으로 발매했다.

2022년 1월 해금 나리의 작곡으로 디지털 싱글 <그리 흘러보내고, 나 달숨에 쉬리>를 발매했으며, 이어서 <우리 가곡 [그 시들지 않는 선율들..]>을 디지털 음반으로 재발매하였다. 2022년 소프라노 조수미와 함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응원가 음원을 녹음하고 공연했으며, 조수미의 가곡 음반 녹음에도 참여하였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주하여 음악적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해금연주가 나리는 현재 나리밴드 대표와 세종엔터테인먼트, 문화운곽의 전속 연주자로 전국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피아니스트 송영주

Youngjoo Song, Piano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한국인 최초로 뉴욕 블루노트에서 단독 공연을 가졌다. 그 후로도 꾸준히 블루노트 재즈페스티벌, 워싱턴 재즈페스티벌, 재즈링컨센터, 서울재즈페스티벌 등에서 초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듯 송영주는 서정성과 그루브가 집약된 자신만의 독보적인 색깔로 재즈신을 사로잡았다. 클래식에 기반을 둔 탄탄한 음색과 대중 음악에 대한 탁월한 이해까지 겸비한 그녀는 조수미, 양희은, 김동률, 성시경, 비, 보아, 슈퍼주니어, 엑소, 규현 등 장르를 오가며 다양하고 우수한 뮤지션들과도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음악계 곳곳에 송영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장르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아티스트지만, 그런 그녀가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정진하는 것이 재즈다.

지금까지 14장의 앨범을 발표하였으며, <Love never fails>, <Tale of a city>, <Late fall> 앨범으로 한국대중음악상 재즈 연주상과 재즈 음반상을 3번 수상하였다. 한국과 뉴욕을 오가며 무대에 오르고 있는 그녀는 Steve Willson, Alex Sipiagin, Mark Yurner 등 대가들과 연주를 하는 것은 물론 젊은 재즈신을 주도하고 있는 Marcus Gilmore, Mike Moreno, Kendrick Scott, Vicente Archer 등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음악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서울신학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지휘 최영선

Youngsun Choi, Conductor



지휘자 최영선은 만 15세의 나이로 비엔나시립음악대학 피아노 전공 본과에 최연소로 입학했으며, 이후 그라츠국립음악대학에 최연소로 입학, 피아노과, 합창 지휘과,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지휘과를 졸업했다.

젊은 나이부터 국내외 유수의 오케스트라인 야나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쇠르 심포니, 브장송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브뤼셀 필하모닉, KBS교향악단, 부천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청주시립교향악단, 춘천시립교향악단, 과천시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포항시립교향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코리아콥오케스트라, TIMF(통영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 디토 오케스트라, 충북도립교향악단,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함께 총 150여 회에 이르는 음악회를 지휘하였고, 일본의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국내 순회공연을 지휘하고 롯데콘서트홀 2017 L콘서트 ‘온에어’ 시리즈를 전속으로 지휘하였으며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선택한 유일의 전속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 출품작 <지크프리트의 검>, 모리스 라벨의 <어린이와 마법>, <라보엠>,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세빌리아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 순천만교향악축제, TIMF 오케스트라와 음악극 <피노키오> 등 현대음악 및 오페라와 뮤지컬 등 여러 장르를 두루 소화하고 있으며, 특히 2011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파이널리스트로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2014년 통영국제콩쿠르 세계총회를 기념하여 국제콩쿠르 입상자 출신 신진 음악가들로 구성된 코리안 위너스 오케스트라에서 지휘 부문 대표로 선정 및 지휘하였다. 2018년에는 국제융합예술대상 훌륭한 음악인상(지휘 부문)을 받았다.

과천시립교향악단과 (재)국립오페라단의 부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서울예술고등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수원대학교를 출강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후학 교육에 힘쓰고 있다.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1997년 2월 창단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외 정상급 지휘자를 영입하고 우수한 기량과 열의를 갖춘 연주자들로 단원을 구성하여 교향악은 물론 오페라, 발레 등 극장음악 전문 오케스트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매년 4회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더불어 국내외 주요 오페라 및 발레 공연,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등에 참여하고 있다. 1998년 유니버설발레단과 뉴욕 및 워싱턴 공연 시 뉴욕타임즈로부터 ‘뛰어난 오케스트라(outstanding orchestra)’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2000년 영국 런던 새들러즈 웰즈 극장에서 지젤과 돈키호테를 성황리에 공연하였다. 2009년에는 태국 방콕에서 태국적십자사의 초청으로 한·태 수교 50주년 기념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피아니스트 김대진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1일 전국연주회, 6.25전쟁 60주년 기념 월드오케스트라 콘서트 등의 기획공연을 비롯하여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 조수미, 홍혜경, 이네사 갈란테,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안드레아 보첼리, 호세 쿠라, 마르첼로 알바레스, 베이스 르네파페, 플루티스트 패트릭 갈루아, 발터 아우어, 오보이스트 알브레히트 마이어, 프랑수아 를뢰, 클라리네티스트 안드레아스 오펜잠머,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국립오페라단·발레단·합창단, 유니버설발레단 등 세계적인 연주자 및 단체들과의 협연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00년부터 군포문화예술회관에 상주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9년부터 시행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의 롤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1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약 23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구현하는 매력적인 오케스트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오사카심포니 홀에서 오사카 한국문화원 개원 20주년 기념행사인 <K-CLASSIC CONCERT>를 선보여 오사카 재외동포 및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세계적인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가 연출한 바그너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라인의 황금>을 한국 초연으로 선보이는 등 국내 교향악단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 탱고 피버

# Tango fever

2022 리처드 로저스 오닐 생애 마지막 콘서트

리처드 로저스 오닐 생애

플리양 라만로, 반도레

양인모 바이올린

김태국 첼로

그리고 음악

멈추지 않는 춤

2022.12.29 THU 7:30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티켓

예매

펫숍의 인형 같은 강아지들이 오는 곳,  
**번식장을 아시나요?**

여기 80여 마리의 동물들은  
모두 구조되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동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루시법 프로젝트와 함께  
이 동물들을 지켜주세요!



루시법 프로젝트  
함께하기

**루시법:** 영국에서 2018년 발표된 법안으로 6개  
월령 이하 강아지·고양이를 제3자(펫숍)가 판매  
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한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반려동물 대량 생산과 매매  
에 수반되는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해 한국의 루시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동물권행동 카라**

카라가 번식장에서 구조하여 더봄센터에서 안전하게 보호 중인 모견과 자견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의 선택.  
특별한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드레스 데니쉐르 by 서승연.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무대의상 · 맞춤 · 대여

[www.denicheur.co.kr](http://www.denicheur.co.kr)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4길 55 매종데니쉐르 / Tel.02)542-1319

# Wiener Sängerknaben Vienna

천사들의 합창이 돌아왔다!

# Boys Chor

창단 525주년 기념

##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2023. 2. 4 SAT | 2. 5 SUN |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1.27 관악아트홀 | 1.28 함안문화예술회관 | 1.29 부산문화회관 | 2.1 속초문화예술회관 | 2.2 구미문화예술회관



**CREEDIA  
CLASSIC  
CLUB 2023**

**CREEDIA**  
MUSIC & ARTISTS



삼에 [ ]가 필요할 때

**크레디아  
클래식클럽  
2023**



한달에 한번 수요일 2시·8시 롯데콘서트홀 | 모든 좌석 38,000원

# CREDIA SEASON 2023

## 크레디아 클래식 클럽

CREDIA CLASSIC CLUB

1월 - 12월, 롯데콘서트홀

## 빈 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

NEW YEAR'S CONCERT OF  
VIENNA BOYS CHOIR

2.4 (토) - 2.5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양인모 & 김다솔 듀오 리사이틀

INMO YANG & DASOL KIM DUO RECITAL

4.7 (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필립 헤레베헤 & 상젤리제 오케스트라

PHILIPPE HERREWEGHE &  
THE ORCHESTRE DES CHAMPS-ELYSEES

5.17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YUHKI KURAMOTO CONCERT

6.2 (금) 롯데콘서트홀

## 테너 존노 리사이틀 <로맨티스트>

TENOR JOHN NOH RECITAL  
<ROMANTICIST>

6월 중

##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BREATH : 숨>

HERA HYESANG PARK RECITAL  
<BREATH>

6월 중



VIENNA BOYS CHOIR ©LUKAS BECK

DISNEY IN CONCERT ©DISNEY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SEONG-JIN CHO PIANO RECITAL

7.4 (화) - 7.5 (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조수미 &**

**베를린 필하모닉 12첼리스트**

SUMI JO & THE 12 CELLISTS OF  
THE BERLIN PHILHARMONIC

7.6 (목) 롯데콘서트홀

**디즈니 인 콘서트**

DISNEY IN CONCERT

9.2 (토) - 9.3 (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정명훈 & 정경화 & 지안 왕 트리오**

MYUNG-WHUN CHUNG &  
KYUNG-WHA CHUNG & JIAN WANG

9.5 (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장한나 & 미샤 마이스키**

HAN-NA CHANG & MISCHA MAISKY

9.23 (토) - 9.24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요요 마 첼로 리사이틀**

YO-YO MA CELLO RECITAL

11.2 (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 무지치 콘서트**

I MUSICI CONCERT

12.9 (토) - 12.10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YUHKI KURAMOTO & FRIENDS

12.24 (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리처드 용재 오닐 <선물>**

RICHARD YONGJAE O'NEILL  
<THE GIFT>

12.29 (금)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조수미 & 프렌즈 <In Love>  
SUMI JO & FRIENDS <In Love>

CREEDIA

CREEDIA MUSIC & ARTISTS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 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http://www.clubbalcony.com)